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종대왕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지난 5월호부터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 「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를 연재하고 있다.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과 학전문지 디스커버리 1994년 6월호에 게재된 ‘쓰기 적합함’이란 기사에서 어문학자 레어드 다이어먼드는 “한국에서 쓰는 한글이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 ‘대지’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렀다.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상상력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바로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정말로 기묘한 것이 다빈치가 한창 이탈리아반도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상상력으로 독창적인 발명을 해갈 때, 한반도에서는 세종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15세기가 낳은 위대한 동서양의 쌍두마차였다.

다빈치와 세종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 사물의 이치

를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고자하는 탐구정신과 사물이나 사물에 대한 포용정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점 등은 놀랍도록 닮았다.

천둥과 번개에 관한 일화는 두 사람이 전생에 동일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다빈치는 그의 저서 ‘코텍스아틀란티스’에서 “(전략)그리고 번개가 치면, 어째서 천둥이 그 뒤를 따라 이어지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세종도 마찬가지다. 어린 세종은 대궐로 들어오기 전인 8살 때까지 사가(私家)에서 살았는데,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았다. 하루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번개와 천둥이 쳤다. 세종은 호기심에 이끌려 친구인 농사꾼 아들에게 물었다.

“왜? 비가 오면 번개와 천둥이 일어나는 걸까?”

두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경험이야말로, 지혜의 원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

세종은 인간 존중의 철학자였다. 그것은 말로만 떠들어대던 역대 왕들의 '백성사랑' 이 아니다. 헬레니즘적인 성격이며 공맹사상의 15세기 구현이다.

식을 시험하려는 열의와 고집, 실수에서 배우려는 의지는 두 사람이 막상막하다.

고차원적인 훈민정음 제자 원리 및 월인천강지곡의 높은 경지와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 비행선의 과학적 설계 등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통해 이뤄낸 경지인 것이다. 두 사람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현실적인 답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사람들의 인지와 심상에 자리해 있는 어떤 무형적인 자산이다. 이는 유형적 자산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은 이 국가 브랜드를 애민, 자주, 과학정신에서 찾았다.

세종은 인간 존중의 철학자였다. 그것은 말로만 떠들어대던 역대 왕들의 '백성사랑' 이 아니다. 헬레니즘적인 성격이며 공맹사상의 15세기 구현이다.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고의 혁명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국민을 종처럼 부리며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상기한다면, 세종은 혁명가에 다름 아니었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표현해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훈민정음을 만드니 온 백성이 쉽게 익혀서 언어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함에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백성사랑은 쉽지만은 아니했다. 당시 우리나라 양반사회는 그야말로 벽창호사회였다. 고려 말 불교의 타락에서 오는 갖가지 폐해를 줄이고 조선 개국으로 이어진 쿠데타의 명분을 확립하고자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일부 유학자(儒學者)들은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다.



군림의 방법은 백성을 무식하게 만드는 것. 한글창제 이후 오랫동안 한글을 '상것들의 글'이라 하여 관용문서 등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백성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멋대로 나라를 요리하고 싶었던 까닭이 아니었던가?

세종은 양반들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은 모두 자세하게 알 길이 없으니, 관리들이(국민에게) 모조리 알려주어야 한다"며 선도해 나갔으니 지극한 애민정신이 아닐 수 없다.

세종은 몸소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언권재민(言權在民)사상을 불어넣었으니 시대를 앞서간 명 CEO가 아닐 수 없다.

세종은 간디와 같은 인권옹호자이기도 했다. 양반들의 온갖 트집에도 불구하고 노비나 천민이라 할지라도 실력만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 삶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게 해주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장영실과 박연이다. 15세기 대표적 천재인 장영실은 노비출신이었으나 세종의 총애를 받

오늘날 전 세계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추세이고, 삼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종은 실로 시대를 앞서간 대선각자라 아니할 수 없다.

아 자격루나 옥루 같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 인재 등용의 요체를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에도 학력을 따지는 기업들은 열린 마음으로 세종의 인재관리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세종은 날씨가 추어지면 죄수 가운데 중죄자를 제외하곤 많은 사람을 방면했다.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시정케 하고, 규정을 잘 몰라서 저지른 죄는 가볍게 벌하도록 하였다.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오늘날에도 새삼 가슴이 환해지는 대목이다. 죄수에게 남형(濫刑), 사형(死刑), 태형(笞刑)을 금하고, 사형 죄수에 대하여는 삼복제(三覆制)를 실시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추세이고, 삼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종은 실로 시대를 앞서간 대선각자라 아니할 수 없다.

세종의 덕목 중 하나는 공정성이다. 부왕의 이야기를 담은 태종실록이 거의 완성되어 가자 궁금해진 세종은 맹사성에게 그것을 좀 보자 하였다. 그러나 맹사성은 단호히 거절한다.

“성상께서 보신다 하더라도 고칠 것이 없고, 만들기 전에 보았다는 말만 들을 것이오니,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대꾸하자 세종은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고 보지 않았다. 오늘날 무소불위의 CEO들이 자신의 공격을 높이며 분식회계를 서슴지 않는 것을 상기해보면 대단한 정대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종은 결코 무른 사람은 아니었다. 천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장영실을 달달 볶았는데, 하루는 일식이 벌어지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예상 일식시간이 4초 정도 늦어지자 당장 곤장 20대의 벌을 내렸다.

나중에는 어가를 잘못 만들었다고 파직하기도 했다.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최만리를 신하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치가 떨리는’ 모욕을 주기도 했다.

아침 경연 때, 제대로 학습하지 않거나 지각하는 자가 있으면 매몰차게 호통을 쳤으며, 강원도 지역에서 왜구가 출몰하자 후퇴한 장수를 불러 그 자리에서 목을 치기도 했다.

경복궁 내에서 대포를 쏘는 이벤트를 벌였으나,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하지 않은 부대에 벌을 내려 군기를 잡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질책이었으며, 애민정신과 화를 미연에 예방하려는 슬기의 발로인 것이다.

탐구정신 또한 다빈치 못지 않았다. 신체의 비밀을 알고자 시체실에 숨어 들어가 30여구의 시체를 해부하고 각종 전쟁무기를 만든 다빈치나, 측우기를 발명하기 위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든 깊이의 척촌수(尺寸數)를 재어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고 천자화포, 지자화포 등 각종 병기를 연구한 세종이나 오십보백보다.

세종의 하루 집무스케줄을 보면 놀랍다. 오늘날 CEO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고민하고 노력했다.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대비와 왕대비 등에게 인사를 올린다. 해 뜰 무렵에는 경연에 참석한다.

경연을 마치면 아침식사를 한 다음 조회를 한다. 백관이 모두 참석하는 정식조회(朝參)와 대신, 중신, 승지, 사관 등이 참석하는 약식조회(상참)가 있는데, 상참은 매일 한다. 조회가 끝나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것이 끝나면 상참에 참석하지 못한 부서에서 파견된 관료들의 보고를 받는다. 그런 다음 상소를 검토하거나 공무서류들을 결재한다. 그러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다. 식사를 마치면 주강에 참여해 공부한다. 주강 후에는 발령받고 떠나는 자, 오는 자들을 만나고 민원을 청긴다. 오후 5시경에는 야간 숙직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암구호

세종은 삼강과 오륜을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사회윤리는 예악(禮樂)의 정리로 더욱 발전되었다.

를 정해준다. 해지기 전 석강에 또 참석하고 저녁식사 후 야간업무를 본 다음, 다시 문안인사를 드리고 9시 이후에 을야(乙夜:밤에 책을 봄)를 했다. 상당한 체력이나 의지가 없으면 이겨내기 힘든 일과다.

아시아 최고의 르네상스인 세종의 신화는 바로 이런 끝없는 담금질에서 태어났다.

세종은 중전 소헌황후의 호를 검비(劍妃), 다시 말해 검소한 왕비라고 지었으며 경복궁 안에서 밭을 만들고 직접 똥지계를 지고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때 세종을 가르친 사람은 김포에 사는 농부였다. 이런 소박한 면에서는, 변기 물을 낭비하는 게 아까워 변기물통에 벽돌을 넣어 물을 절약했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세종은 삼강과 오륜을 바탕으로 사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사회윤리는 예악(禮樂)의 정리로 더욱 발전되었다. 유교사상에서 예악의 정비는 곧 질서의 안정을 뜻한다. 유교의 음악관(音樂觀)에서는 나쁜 음악이 유행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나라에 망조가 든다고 생각했다. 사회분위기를 건전하게 조성해갈 좋은 음악(예악)을 장려하고 음란한 음악을 배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세종은 모든 제도나 문제는 우수하고 유능한 학자들의 공동조사와 공동연구를 거쳐 토론하고 의논하게 하여 결정짓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집현전이 대표적 예다.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을 거쳐 검토한 안들은 정

책이 시행되기 전 경연에서 제시되어 사전에 논의하였다. 나아가 사헌부나 사간원의 상소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러한 정치형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들도 집현전의 제도나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해 봄직하다.

전분 6등, 연분 9등의 세법은 가장 정확하고 객관화된 세법이였다.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손실담험법은 인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불공정한 관행에 흐르기 쉬웠다.

이 공법의 시행은 수의(收議:문무백관을 모아 여론을 모음)라는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나아가 여자 종으로서 아이를 가져 낳을 달에 이른 사람과 산후 100일 내에 있는 산모에게 일을 시키지 않게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산후 만 30일 후에 일을 하게 하였으니, 오늘날의 노동법도 혀를 내두를 만하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형편이다. 링컨이나 케네디, 모택동이나 장개석, 처칠이나 드골 등을 거의 신화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에게도 세종 같은 불세출의 명군이 있다.

세종의 인본사상, 과학정신, 창의성, 탐구성 등은 현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이다. 우리는 세종에게서 보다 많은 것을 추출하여 기업경영의 교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비어천가

- 1445년(세종27)4월에 편찬되어 1447년(세종29)5월에 간행된 조선왕조의 창업을 송영한 노래책